



농촌 · 농업 없는 미래 가능한가?

■ 심 세 성 / 배재대 교수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WTO, 그리고 최근 DDA 등 힘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시장개방 압력에 우리 농업은 철저하게 난도질을 당했고 계속 당하고 있다. 1가마에 4, 5만원 하는 수입쌀을 제쳐 놓고 16만원씩이나 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겠다고 고집하는 농업인들, 보통사람이 보더라도 좀 그러한테 경제이론을 수학공식으로만 풀려는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본다면 참으로 딱하게 여겨졌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역지를 부리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쓸데없이 투정한다는 식으로 몰아 부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안다. 또 도시로 나와 막노동을 해도 하루에 5, 6만원을 거뜬히 벌 수 있을 터인데도 우직하게 농촌을 지키고 힘든 농사일을 마다하지 않는 농업인들의 깊은 속내도 저들은 잘 안다.

육상육으로 '생명 찢줄' 점차 사라져

힘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것처럼 신봉하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생산과 교역 방식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경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월드워치연구소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리고 6년 전에 발표된 보고서가 이미 운은 땀 내용이지만 그들의 경고는 매우 매섭고 준엄하며 차라리 섬뜩할 지경이다.

「과거 10년 간 삼림은 2.4%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입은 인명피해가 80년도에 1억4700만명, 90년대에는 연간 2억1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99년도 한 해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의 재산손실액은 자그만치 130조원이 넘었다.」 내용이 여기까지만 보도됐으면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어



지는 것들은 더욱 더 절망적이다. 「만약 시장 원리가 계속 힘을 받게 되면 지구 전체 육지 표면적의 70% 이상이 앞으로 30년 내에 도로와 도시, 건물 등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땅의 80% 이상이 영향을 받는 최대의 환경재해 지역이 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 다음으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3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 세계 6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듣기에도 정말 끔찍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겨울 눈비가 오질 않아 저수지란 저수지의 담수율이 대폭 떨어진 우리의 현실에서 그들의 분석결과는 결코 과장된 지적으로만 그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사람이 살자고 농지를 공장으로, 대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도리어 인간이 제대로 살수가 없는 지옥으로 변하게 한다. 1년에 산림과 농지가 도시화로 변해버리는 토지가 어지간한 군(郡)의 면적을 능가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만든다고 댐을 만들었던 시화호는 이미 '놀이용'의 호수로 전락되었다. 농경지 확대를 명분으로 바다를 매립한 김포

지역은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슬쩍 용도가 바뀌어 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지를 빌미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는 땅들이 무자비한 쇠날 아래에서 처참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새만금지구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도 쌀이 남아 돌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농지를 만든다고 또 바다를 막고 있으니 말이다.

농산물 경시 풍조, 지구촌 곳곳서 경종

세계적 중심과제가 되고있는 식량부족 문제에 우리는 꽤나 행정 편의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쓰럽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200만 정보의 농지가 그렇게 넓어 보였던가? 우리의 수십배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무 탈 없이 잘 가꾸고 그것을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어 도시·농촌이라는 균형된 국토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요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를 별 무리 없이 꾸려나갈 능력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모처럼 몇 년에 걸쳐 쌀 농사가 풍년이 들었는데 이걸 온전하게 보관할 수가 없어서 부랴 부랴 지은 RPC 절반 가량이 적자에 문을 닫

아야 할 판이니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풍년만 원망하고 있다.

6.25동란 이후 한참 식량이 모자라서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PL480법에 의한 미국의 쌀, 면화, 밀가루 등, 소위 삼백(三白)의 농산물이 원조라는 명분으로 이 땅에 건너왔다. 이 가운데서 면화와 밀가루는 거의 완벽하게 토종들을 몰아냈다. 신토불이정신에 입각한 국민적 열의에 밀은 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면화는 영 그게 아니다. 쌀도 지키지 않으면 그 지경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단 말인가.

얼마전 우리 나라를 찾은 미국 면화협회 도너번 회장은 면화산업이 사양업종이라는 일

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고 소비자들의 삶이 나아지면서 가공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화학섬유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과연 생산단가가 비싼 면화가 설자리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러했다. 사양산업이어야 할 면화를 당당하게 21세기의 총아로 만들겠으니 두고보라는 말이다. 어디까지나 자기네 나라를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이며 독점적으로 생산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존심이었겠지만 여하튼 무조건 부가가치가 없고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농산물을 경시하고 말살하려는 우리들의 정서에 경종을 주는 답변은 부인하기 힘들다.

‘식량부족 문제’ 세계적 중심과제, 우리 농지 결코 넓지 않아 하늘이 내려준 기회 활용 못하고 불과 몇 년의 풍년에 아우성



농지·삼림의 절대적 경제적 가치, 간과 말아야

우리의 주요한 곡물이 다국적 기업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세계경제가 식량부족에 의해 몇 개의 나라가, 몇 개의 기업체가 독점해 버리는 곡물지배현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동의 석유가 지구촌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가 요동을 치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생활에 절대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 그토록 태연하다는 게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아직 여유가 있고 돈만 있으면 문제없

다는 식으로 마음놓고 있을 지금이 아닌데도 말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밀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나라이기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으로 생산적이고 보전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은 물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국민에게는 옹당 적절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도 어찌자고 농업과 농촌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소리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가 주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말인가.

중요한 산업의 한 가닥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에게 적어도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무차원을 넘는다. 미국은 농업인에게 지불하는 직·간접 보조금이 한 해에 농가 소득의 40%정도 된다. 미국에서 농업의 원동력은 바로 이런 아낌없는 지원의 소산이다.

우리의 문제는 농업이 비교열위 산업이라고 보는 고정관념이며 정부나 관련 조직의 지원시스템 등 농업을 둘러싼 주변 여건이 비교열위에 있다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인지 한참 헛갈리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농지가 없으면 식량도 돈도 없다. 더 나아가 생명도 온전하게 유지하기 힘들다. 이것은 진리다.

구태여 농지나 삼림지대가 사람의 허파에 해당하니 중요하다라는 거창한 주장은 접어두고자 한다. 특히 논은 담수적 효과가 있고, 밭과 삼림은 지하수를 보충해주는 간이역할을 하며 안보적 차원에서 그리고 생태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젠 그만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농지나 삼림은 관광과 휴양적 기능을 갖춘 경제적 가치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 휴식공간 갈망하는 국민 위에 대범해야

오래 전에 당국에서 연중 범죄발생률을 시기적으로 분석 조사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추석을 전후한 기간이 제일 범죄사건이 적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나를 알아내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했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다.

“직장에서 고향을 가느라 차를 타고 가는 도중, 들뜬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배가 부르고 푸근해 지며 풍성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까지 보냈으니 설령 죄를 범할 생각을 가졌었다더라도 그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졌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1주일에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집안만으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간단한 놀이터 정도의 공간만 제공되어서도 안 된다.

요전번 모 꽃 박람회장을 보지 못했는가. 모처럼 볼거리가 있으면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구경을 하는 것인지 꽃을 구경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만 적절한 휴식처에 갈급(渴急)해 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농지의 기능은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제는 농지와 산지가 생산적인 것 말고도 이들에게 관광·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화로 조성하는데 국가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약정보**